

오늘 이웃 종교 대표자분들과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종단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종교 본연의 역할인 사회의 약자에 대해 배려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쌍용자동차 문제가 사회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구속자 석방과 희생노동자 추모, 그리고 해고노동자 복직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단 내에 노동문제 전담 위원회인 노동위원회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노동 현안에 대한 종단의 관심과 역할은 계속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이나 국민 여러분들도 쌍용자동차의 문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